

# [ 김미리 ]

안녕하세요. 이상한마케팅 웹디자인(경력) 지원자 김미리 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아래 링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크롬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miriportfolio.com/>

생년월일 : 1993.08.15

연락처 : 010-9667-0575 / tiny\_miri@naver.com

희망연봉 : 5000만원

## 경력

샤이닝 - 2015.08 ~ 2018.12

조인스엠 - 2019.05 ~ 2021.07

## 자기소개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인터넷쇼핑몰 배송팀에서 일할 때 쇼핑몰에서 일하는 웹디자이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몰이 많다 보니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디자인 학원에서 웹디자인, 웹 퍼블리셔의 작업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막상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코딩 작업이 생각보다 재밌게 느껴져서 성실히 배웠고 취업활동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쇼핑몰 안에서 일하는 것보다 새로운 홈페이지 자체를 만드는 일이 더 뿌듯하지 않을까 싶어 웨에이전시에 취직하게 되었고 첫 웨에이전시에서 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첫 웨에이전시 "샤이닝"에서는 디자이너들이 돌아가면서 템플릿을 제작, 구축하였고 그 이외에 시간에는 정해진 템플릿에서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저는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꽤 오랫동안 한곳에서 일하며 인내심과 끈기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광고마케팅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업무 세분화가 세밀하게 되어있어서 저는 디자인만 집중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광고마케팅 회사였기 때문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제품 상세페이지와 팸플릿 여러 인쇄물 작업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임 겸 팀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른 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주려고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광고마케팅 회사에서 제가 있는 동안 상사에게 덕분에 회사의 디자인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평을 들었으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퇴사했음에도 이전 회사들의 직원들과 연락도 하고 따로 만날 정도로 회사 안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왔습니다.

## 지원동기

### 1. 홈페이지 디자인이 별로입니다.

혹시라도 홈페이지를 디자인하셨던 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디자인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평가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보통 홍보의 목적이 큼니다.

그래서 글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시선을 끌만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마케팅은 블로그 홍보로 목적을 이루어서 그런지 글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

내용을 표현하는 디자인 스타일이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글쓰기 기술을 강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제가 만약 회사 블로그의 글들을 정독하지 않고 홈페이지만 봤다면 대체 어째서 자신이 있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심지어 서브 페이지들은 글과 정돈되지 않은 카톡 후기들이 너무 많아서 켜다가 읽지도 않고 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하게 된다면 이상한 마케팅 홈페이지를 꼭 리뉴얼 하고 싶습니다.

아래 링크로 리뉴얼 시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xd.adobe.com/view/e338695f-2181-44a8-8818-aac3bf80f2c1-b66b/?fullscreen>

### 2.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열등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쳐진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디자인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항상 다른 디자인 선배들의 디자인 방식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디자인은 해도 해도 저보다 잘 하는 사람은 정말 많기 때문에 내 디자인에 만족하기보단 부족한 점을 항상 찾아서 다음엔 조금 더 신선한 시도를 해보자, 다음엔 조금 더 폰트를 크게 사용해 보자, 등등 매번 프로젝트를 끝낼 때마다 들었던 피드백과 나에게 보이는 아쉬운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디자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성실함과 성장 욕구는 이상한 마케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3.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외주 디자이너에게도 섬세하게 신경 써주시는 창균님과 같이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창균님과 오래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기브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피드백 하나를 전달하실 때도 친절하게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자청 계열사 사용설명서의 내용도 신뢰가 되었습니다.

## 입사 후 포부

저는 입사 후에도 이번 연도에 계획했던 대로 디자인 학원에서 UI 공부를 하며 디자인 역량을 더 키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디자인 스킬들을 회사 업무에 바로 적용을 시키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수가 되고 싶습니다. 디자인 스터디를 기획해서 동료 디자이너들의 퀄리티 향상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회사에 효율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습니다.